

내 안에 갇힌 또다른 자아의 거듭나기

박일문, 채희윤, 한강의 최근작을 읽고

최성실
문학평론가

버지니아 울프는, 인간의 경험은 '광대한 감수성'이라고 했다. 그 광대한 감수성을 등에 지고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이 땅의 소설가들은 아닐까. 그 경험의 감수성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속에서 차례로 죽어간 내 안에 갇혀 있는 자아의 부활을 꿈꾸는 것, 내 안에 있는 그 미립자들의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고자 하는 희원, 여기 내 손안에 잡혀 있는 세권의 소설은 그렇게 꿈지락거린다. 90년대 중반기 이들의 소설은 내 안에서 죽어간 자아의 부활을 통하여 무엇을 꿈꾸는가.

아직 남아 있는 희망과 사랑의 믿음

박일문의 《아직 사랑할 시간은 남아 있다》의 화두는 90년대라는 전환기적 시대에 '헐떡거리며 지쳐 널부러져 있는 80년대 육체를 부활하라! 왜냐하면 아직 희망은 남아 있고 희망이 남아 있는 한 사랑할 시간도 남아 있으므로, 90년대 들어서 죽어간 80년대 자아여! 다시 부활하여라!'이다. 작가는 아직 남아 있는 희망과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 80년대를 치열하게 살아온 인물들에게 얼마나 버겁고 힘든 것인가를 언제나 '불구의 섹스'를 끝내야 하는 인물들의 '육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

90년대, 문학 속에 나타난 이들의 육체는 발기 안되는 죽어버린 육체다. 따라서 성성, 문청, 화란 등 이 소설의 중심 인물들은 혁명의 새로운 봉기를 외치기 전에 "치절한 섹스, 섹스의 욕망이여 타는 태양처럼 이글거려라"라고 외친다. 그들이 꿈꾸는 것은 영원히 발기하는 '불멸의 섹스'다. 80년대의 가버린 혁명이 주는 고통은 이들에게 섹스도 사랑도 제대로 못하게 만든다. 따라서 작가가 고민하는 문제도 조직적 차원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존재론적 차원의 어떤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에 환멸을 느끼게 된 진수가 역사의 뒤안길에서 쓸쓸함을 느끼거나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갇힌다는 회의론적 서술을 하는 것은 이와 맞닿아 있는 고민이다. 그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은 육체의 건조함이다. 그 말라버린 육체의 건조함이 기억을 더듬어서 경험 속에 잠재되어 있는

90년대 중반기에 씌어진 이 소설들은 90년대 초반의 혼란을 극복하면서 또다른 자아의 부활을 꿈꾼다. 그것은 감각을 잃어가며 죽어가는 육체의 되살림을 통해 내 안에 숨어 있는 자아를 죽음이라는 형식으로 다시금 살려내려는 지난한 싸움으로 응어리진다. 내 안에서 죽어간 자아의 부활, 이것이 이들의 화두다.

아버지의 영상을 떠올리게 한다. 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를 체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변해버린 세상에서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이루지 못한 혁명에 대한 회한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서글픔이며 안주하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옮겨다니는 영원한 베아트릭체 숭배를 비롯해서 맨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지난날 운동했던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90년대 나체로서 있는 자들, 섹스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서글픔인 것이다. 이런 부유하는 인간들에게 작가는 개인적 자아로서 외부현실과의 응전관계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들고 그 최후의 보루가 서로의 '사랑이다'라는 전언적 메시지를 남긴다.

그 사랑을 위해서 작가는 문청, 기회 같은 남성 운동가들이 아니라 두미, 서화란과 같은 여성 운동가들에게 스스로 설 수 있게 한다. 결국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의 자아를 찾아 홀로서기가 가능해질 때 그리고 그 홀로섬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더불어 있는 타자들을 인식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아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기대했던 남자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스스로 자기를 찾아가는 것, 그를 통해서 거듭나기를 꿈꾸는 것, 그리고 남자·여자가 아닌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감싸안기는 것



이다.

그러나 척박한 시대의 출발점으로서의 사랑이, 육체의 부활을 꿈꾸는 자들의 사랑이 "작은 갇힌 흔들림으로 나직하게 시작하는 어떤 것이라"는 작가의 전언은 상당히 추상적이다. 그리고 90년대를 살아가는 80년대 인물들의 군상이 퇴폐적인 행각으로 부각되는 부분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왜 아직도 우리의 후일담 소설은 죽은 자에 대한 회상(권기회)과 운동권의 활동 내력과 이를 둘러싼 사랑의 문제가 상투적으로 맞물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 도식성을 벗어나 섬세하고 정치하게 80년대를 감싸안는 새로운 90년대의 전략적 모드를 구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폐쇄된 자아의 세상에 대한 냉소주의

채희윤 소설 《별뿔별 헤는 밤》의 두드러진 특징은 일인칭 서술자의 독특한 내성에 있다. 그가 구가하는 일인칭 서술자는 자신의 의식에 매몰되어 있기는 하지만 타인에 대해서 스스로 요약하여 보고하거나 눈앞에 보이는 것을 관찰하는 전망을 가지기도 한다. <적벽을 찾아서>는 공장에서 노조활동을 하다가 신나를 뿌리고 분신한 동생을 통해서 이 땅에 대대로 세습되는 운명같은 삶의 질곡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그런 현실을 넘어서고자 하는 희망의 공간으로서의 적벽은 일인칭 서술자의 관찰력에 의해서 섬세

하게 솟아오른다.

그 객관적인 서술태도가 냉소적이고 회화적인 어투로 묘사되기도 한다. 이 회화적인 어투를 통해서 서술자는 '나' 이외의 인물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나' 이외의 타자들의 비정상적인 삶에 대해 회의를 갖기보다는 강한 피해의식으로 자신의 행위를 은연 중에 정당화하기도 한다. 그 정당화를 통하여 일인칭 서술자는 타자와 사회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지며 폐쇄적인 자의식으로 세상에 대한 냉소주의를 나타낸다. 그 냉소주의는 일인칭 서술자가 갖는 정보의 혼란, 순진성, 심리적이고 윤리적인 무감각으로 드러난다. 이를 통해서 상황을 객관적인 어조로 드러내려는 것, 이를 통해서 아이러니를 구가하고자 하는 것이 채희윤 소설의 전략이다. 그래서 의식보다는 무의식에 나타나는 긴장과 반발, 그리고 모순되는 충동의 전쟁터를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그가 내던지듯이 뿌려 놓은 말의 조각들과 농담 등 텍스트의 갖가지 징후들에 담겨진다.

<어느 오일의 삽화>, <해질녘 길 위에서 서서>, <가발> 등이 이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 작품들에서는 공히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상의 부분들, 혹은 명분에 가려 듣지 못했던 역사적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주변 인물들의 목소리가 다양한 음식으로 전해진다. 이들 소설의 주인공들의 공통된 특성은

현대미학사의 모던/포스트모던 문화론選

현대성의 경험

마살 버만/ 윤호병 외 옮김/ 값 10,000원

이 책은 괴테와 보들레르, 마르크스에서부터 뉴욕시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근 2세기에 걸친 모더니즘의 역사를 특이한 시각으로 개관한다.

반미학

할 포스터 편/ 윤호병 외 옮김/ 값 6,500원

이른바 반미학 혹은 포스트모던 이론의 전반적인 방향을 과감히 제시한 책. 1983년 발간된 이 책은 포스트모던의 아카데미즘화 내지는 대중화에 심대한 기여와 모든 예술러지의 모태가 됨.

철학이란 무엇인가

질 들뢰즈 · 펠릭스 가타리/ 이정임 외 옮김/ 값 9,500원

이 책에서 저자들이 지향하는 바는 철학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창조를 통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며, 동시에 새로운 철학은 철학과 과학, 예술간의 깊은 접촉과 교류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밝히는 데 있다.

현대의 조건, 탈현대의 쟁점

베리 스마트/ 설광석 외 옮김/ 값 9,000원

저자는 사회학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과 분석적인 통찰력으로 탈산업사회와 연관되는 여러 가지 대체적인 아이디어, 현대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전환 문제 등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가한다.

탈현대의 사회이론

S. 베스트 · D. 켈너/ 정일준 옮김/ 값 12,000원

포스트모더니즘과 연관된 수많은 이론적 소개와 논의 속에서 저자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고 그 중요 국면을 대면케 해준다. 푸코, 데리다, 보드리야르 등과 다른 사상가들에 대한 소개가 너무 충실해서, 오히려 이 책으로부터 강한 인상을 받도록 한다.

탈현대성의 개념

베리 스마트/ 이규현 · 이형권 옮김/ 값 7,500원

현대가 안고 있는 '복잡한 문제'에서부터 탈현대의 한 중요증상이 되어가고 있는 '세계화 논쟁'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은 현대사상의 여정과 굴곡, 그리고 도전을 명쾌하게 요약, 제시해 주고 있다.

한국문화 · 사회의 상황과 후기

김태원 편/ 값 9,000원

이 책은 현재 유행하듯이 특정한 사회문화적 현상이나 문제에 준거하여 논의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성격에 대한 탐구라는 다소 고전적인 주제로 나아가고 있다.

낭만주의에서 아방가르드까지의 현대시론

옥타비오 파스/ 윤호병 옮김/ 값 7,000원

저자는 20세기 시운동의 뿌리와 변모 · 분열상을 동시에 추적하면서 사실상 거의 소진된 서구 아방가르드 시운동의 종언을 말한다.

사르트르 : 방법의 탐구

장-폴 사르트르/ 윤정임 옮김/ 값 7,500원

사르트르의 후반기 사상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책으로 이 책에도 그의 후반기 사상이 그렇듯 마르크시즘과 실존주의의 융합을 피하려 한다.

현대철학소사

로저 스크루턴/ 전대호 외 옮김/ 값 9,500원

이 책은 중요한 현대철학자들에 대해 심도 있는 설명과 형이상학, 윤리학, 중세 이후 철학의 정치적 태도에 대해서도 그 원리들을 선명히 부각시키고 있다.

현대드라마의 형성

리처드 길만/ 김진식 외 옮김/ 값 9,000원

저자는 뷔히너에서 입센, 스트린드베리 등의 현대극작가들의 불안한 내면적 의식세계를 집요하게 드러내려 한다. 동시에 한 작가의 단위별 연구에 의한 현대작가론을 이 책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도한다.

문학에서 문화연구로

안토니 이스트호프/ 임상훈 옮김/ 값 7,500원

구조주의 이후 기존의 문화연구는 극단적으로 얘기해 위기와 죽음에 봉착했다. 이 책은 그런 위기감에서부터 기존의 문화연구가 지닌 한계성을 극복해 범문화적 텍스트로 눈 돌릴 것을 제안한다.

후기현대춤의 미학과 동향

김태원/ 값 10,000원

예술로서 오늘의 현대무용에 대한 저자의 깊은 해안과 세계의 중요한 예술춤의 흐름을 섭렵한 후 갖는 독특한 문화감각과 미의식을 투영했다.

TV 읽기

존 피스크 외 지음/ 이익성 외 옮김/ 값 5,500원

영언론 문화학의 선두주자인 존 피스크와 존 하트리는 통상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영역 속에서 취급되었던 TV를 문화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TV를 현대 문화생산의 한 요체로서 분석한다.

바르트와 손탁 : 사진론

롤랑 바르트 · 수잔 손탁/ 송숙자 옮김/ 값 8,000원

서구의 대표적 지성인 롤랑 바르트와 수잔 손탁의 사진에 관한 명상과 비평, 기호론적 분석들이다.

예술학

와타나베 마모루/ 이병용 옮김/ 값 8,000원

'미학'으로 알려진 예술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광의의 '예술창조'를 둘러싼 모든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예술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킨다.

움직임과 예술에 있어서 표현

데이비드 베스트/ 김말복 옮김/ 값 7,500원

저자는 비트겐슈타인 이후 현대철학과 예술철학에서 가장 규명하기 힘든 명제인 '표현'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를 탐색해 들어간다.

부조리한 현실과 직면할 때마다 육체적 병에 시달리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손창섭 소설에서도 일부 보여졌던 것인데, 채희운의 경우는 손창섭이 보여주는 자기 폐쇄적인 한계를 거뜬하게 넘어서고 있다. 한계상황조차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그의 차가운 시선이 좀더 작중 인물의 심리적 내상을 정치하게 드러낸다면 한국소설의 정신병리학적 상상력의 또 다른 장을 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죽음을 통해 꿈꾸는 희망

박일문이 80년대를 쉽게 청산해버리려는 회죽거리는 90년대 '절망'이라는 아버지 죽이기를, 채희운이 모순과 병폐에 찌든 곳곳에 '보이지 않는 권력'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의 '폭력'이라는 아버지 죽이기를 하고 있다면 한강에게 있어서 넘어서야 할 이 시대의 아버지는 무엇으로 상징되는가.

심리적 힘의 관계는 에로스와 죽음의 본능이 외부와 별이는 끊임없는 투쟁의 형식이다. 죽음의 본능은 그 자신의 고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고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죽음의 본능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소설, 그러나, 전혀 죽음의 본능이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나치게 팽창한 사랑의 에너지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하는 소설, 그래서 역설적으로 순수한 삶의 거듭남을, 내 안에 갇혀 있는 자아의 부활을 꿈꾸는 소설, 그것이 한강의 《여수의 사랑》이다.

에로스의 지대한 팽창과 이를 억압하려는 현실 사이의 불균형, 그 불균형의 상징으로서의 아버지, 그에 대한 적대감이 스스로 사회구조 속에서 아버지되기를 포기하게 하는 것, 한강 소설의 긴장력은 여기에 있다. 그것은 김병익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의 가난한, 예컨대, 빈곤과 거기서 벗어난 가정의 파탄과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전시대적 세대"의 일부분에서, 있어야 할 진정한 아버지를 갖지 못했기에 전시대의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 숨겨진 욕망에서 그리고 한없이 어눌하게 사라져간 지난 유년의 그리움에서 비롯된다. 그 유년의 그리움이 그에게 광대한 경험의 감수성으로 자리한다.

내 안에 지극히 소중한 것으로 남아 있는 경험의 흔적들이 (<여수의 사랑>의 자흔이라든가, <저녁빛>의 제인이 등) 더럽고 추한 현실의 벽을 이기지 못하고 갇혀 있다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에 《여수의 사랑》이 있다. 죽음이 단지 죽음이라는 기표에 그치지 않고 나 아닌 다른 나로 거듭나는 삶의 과정에 있는 (<저녁빛>),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싸늘한 육체의 부활을 꿈꾸는 (<질주>) 것이 《여수의 사랑》에 모여 있는 소설들의 울림이다.

따라서 이 소설들의 주인공들은 달라질 것이 없는 세상에도 불구하고 '야간열차' (순수한 세상에 대한 동경의 표현) 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는 아니지만 어디엔가 꼭 있을 그들의 희망의 파편들은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신생을 꿈꾼다. 그러니까 한강 소설에서 육체적 죽음은 결국 육체적 부활을 담지한 양가적인 속성을 지닌 것이다. 그것이 텍스트가 침묵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다.

90년대 허리를 넘어가고 있는 이때, 이 땅에 썩어지는 소설들은 90년대 초반의 혼란을 극복하면서 또 다른 자아의 부활을 꿈꾼다. 그것은 감각을 잃어가며 죽어가는 육체의 되살림으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선의 교차를 통한 인식의 전환으로, 그리고 현실의 피폐함으로 침잠할 수밖에 없었던 내 안에 숨어 있는 자아를 죽음이라는 형식으로 다시금 살려내려는 지난한 싸움으로 응어리진다. 내 안에서 죽어간 자아여! 나의 육체여! 부활하라! 이것이 이들의 화두인 것이다. ❖

아직 사랑할 시간이 남아 있다(1,2)/민음사/A5신/각 390면 내외/각 7000원

별뿔별 헤는 밤/세계사/A5신/286면/6000원

여수의 사랑/문학과지성사/A5신/322면/6000원

도서출판 **현대미학사**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107번지

전화 : 766-3527(편) / 745-9527(영) 팩스 : 745-3940